

호러퀸 서영희 “공포영화는 내 취향”

오늘 개봉 '여곡성' 신씨 부인 역

22년만에 리메이크 고전 영화
에이핑크 손나은과 함께
범상치 않은 사극 공포 선보여
“고생하면 뿌듯함·살아있음 느껴”



영화 '추격자',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마돈나' 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서영희가 색다른 공포영화 주연으로 돌아왔다.

8일 개봉하는 영화 '여곡성'에서 그는 비밀을 간직한 사대부 집안 여인 신씨 부인 역을 맡았다.

순수한 외모와 달리 그동안 잔혹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한에 이르는 배역을 많이 연기한 그는 이번에도 범상치 않은 공포를 선보인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힘든 것을 즐기는 편”이라며 “고생하면서 뿌듯함과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일이 저와 잘 맞나봐요.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고생을 하는데 배우는 티가 나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으니 행운인 것 같아요. 고생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여곡성'은 원인 모를 기이한 죽음이 이어지는 한 저택에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된 육부와 비밀을 간직한 신씨 부인이 집안의 서늘한 진실과 마주한다는 이야기를 그린다.

1986년 개봉한 같은 제목 영화를 22년 만에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원작은 '지령이 국수' 등 파격적인 장면으로 한국 공포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원작에서 실제 지령이로 촬영한 장면은 이번에는 CG 힘을 빌려 재현했다.

서영희는 지령이 국수와 더불어 원작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신씨 부인이 닭 피를 마시는 장면도 소화했다.

그는 “‘여곡성’을 대표하는 장면이어서 지령이 국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컸다”며 “닭 피를 마시는 장면은 피가 얼어붙고 닭달이 가지처럼 손에 박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추운 날씨에 촬영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여러 편의 공포, 스릴러물에 출연하면서 ‘호러퀸’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서영희에게도 이번 작품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공포 사극에서 중심을 잡으며 육부 역을 맡은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 출신 손나은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그동안 스릴러는 많이 해봤지만 사극 공포 장르의 처음”이라며 “작품을 할 때마다 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늘한 표정 뒤로 욕망을 감춘 신씨 부인 역에 대해서는 “원작의 신씨 부인에서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내가 연기하고 내뱉는 것에 믿음이 가고 신씨 부인이 묻어나오기만을 바랐다”고 말했다.

서영희는 1999년 연극 ‘모스키토’로 데뷔, 내년이면 어느덧 연기 인생 20년을 맞는다.

아내이자 엄마가 된 후 그는 연기하면서 감사함과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했다.

“예전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해요. 소중한 가족이 집에 있는데 그 시간을 버리고 밖에서 일하는 만큼 더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큰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곡성’ 이후에도 그는 내년 방송 예정인 OCN 드라마 ‘트랩’에 이서진의 아내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화감독과 드라마 PD들이 믿고 맡기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데 20년이 돼간다니 부담스럽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생김새와 연기가 뒤지 않아서, 너무 예쁘지도 않고 몸매가 뛰어나지도 않아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부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딱 달라붙는 옷만 입어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뽀빠지’부터 현대복까지 오갈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연합뉴스

장희진, 드라마 ‘바벨’서 박시후와 호흡

배우 장희진(35)이 내년 1월 방송할 TV조선 드라마 ‘바벨’의 여주인공으로 낙점됐다고 TV조선이 7일 밝혔다.

‘바벨’은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진 검사와, 재벌과의 결혼으로 인생이 망가진 여배우의 사랑을 그린 미스터리 멜로극이다.

장희진은 극 중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이자 재벌가와 결혼한 한정원을 연기한다. 국민 연인으로 불리던 그녀가 재벌과 결혼 후 남편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풀지에 남편을 죽인 용의자로 지목된다.

장희진은 “오랫동안 저 스스로에게나 시청자



들께 기억에 남는 소중한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바벨’ 남주인공으로는 박시후(41)가 캐스팅됐다. 연출은 KBS 2TV 드라마 ‘화랑’, ‘최고다 이순신’ 등을 만든 윤성식 PD가 맡는다. /연합뉴스

언니들이 다시 온다...셀럽파이브 신곡 ‘셔터’ 첫 선



개그우먼 송은이, 신봉선, 안영미, 김신영으로 구성된 그룹 셀럽파이브가 오는 19일 신곡 ‘셔터’를 선보인다고 송은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셀럽파이브는 지난 1월 북고풍 데뷔곡 ‘셀럽파이브(부제: 셀럽이 되고 싶어)’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높은 영상 조회 수와 수많은 커버댄스(팬들이 안무를 따라 하는 것)를 낳았다.

신곡 ‘셔터’는 1980년 신스팝 기반 디스코코어로 유비(UV) 뮤지가 작곡했다. 리더인 김

신영은 작사에 참여해 대중의 관심을 갈구하는 예능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담아냈다. 여기에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짝꿍 게스트의 피쳐링도 있다. 아울러 ‘셀럽파이브’보다 어려운 안무가 탄생할지도 팬들 기대를 모은다.

앞서 최근 공개된 웹예능 ‘판별력 시즌2’에서는 ‘셔터’ 제작 과정과 혹독한 안무 연습과정, 실감 나는 합숙소 생활이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네이버TV의 비보티비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지방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습터(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애니컬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25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차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뒤뚱뚱뚱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MBC네트워크특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UHD 스페이스 강원(재) 15 생방송 빛날	00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두산 vs SK, 인천>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모두 하우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습터	00 죽어도 좋아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SBS 8 뉴스 20 KBC 8 뉴스 30 흥부외과: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해피투게더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40 미운 우리 새끼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PICK X 언더나인틴(재) 40 문화사색	5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워터네 병원 이야기)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독도채널e(재)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신선의 땅, 인간의 마음, 중국 무릉도원 4부>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그해 가을을 남해 4부 - 골목 안 풍경>
08:30 미니특대 X	14:45 로보카 폴리	21:50 다큐 시선
08:45 랄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3:05 EBS 스페이스 공감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5:05 지식채널e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5:10 과학다큐 - 비온드(Beyond)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닭날개조림과 골뱅이 더덕무침>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 한다면 후환을 면하게 될 것이다. 48년생 식상함을 거두고 새로움을 추구하라. 60년생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72년생 활동만 잘 한다면 대박이 날 수 있다. 84년생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본인의 정작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91</p>	<p>午 42년생 예기치 못한 판세로 난감한 입장에 놓이리라. 54년생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하라. 66년생 되도록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다. 78년생 해묵은 것들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과감하게 청산함이 합리적이다. 90년생 피해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3, 89</p>
<p>丑 37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49년생 확실한 역할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61년생 우열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73년생 조건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66, 10</p>	<p>未 43년생 성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55년생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할만 하다. 67년생 방식 하다가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79년생 가까운 아와의 인연이 길사로 연결되겠다. 91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6, 17</p>
<p>寅 38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50년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74년생 대세가 이미 정해졌으니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86년생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98, 39</p>	<p>申 44년생 자제하는 것이 유익하다. 56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겸여한 주관은 오류를 낳기 쉬운 국량이다. 68년생 드디어 차선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 80년생 큰 가닥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라. 92년생 매우 부담스러운 짐을 털어 주는 이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00</p>
<p>卯 39년생 객관적이지 않다면 집착을 버리는 것이 옳다. 51년생 별 문제없이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63년생 간절히 바라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75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87년생 발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4, 55</p>	<p>酉 45년생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57년생 이마를 맞고도 심각하게 의논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69년생 가끔씩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1년생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93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72, 25</p>
<p>辰 40년생 수용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겠다. 52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4년생 한 곳에만 몰입하지 말고 시선을 편 데로 돌려 보아라. 76년생 정중동의 형태가 합리적임을 알아야 한다. 88년생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14</p>	<p>戌 34년생 가려서 행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다. 46년생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58년생 뜻밖으로 이종 또는 삼종의 행운이 따라리라. 70년생 쉬어 있으면서 잘 살펴봐야겠다. 82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67</p>
<p>巳 41년생 효율성을 제고하자. 53년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탄력을 받는다. 65년생 비로소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77년생 마음을 꼭 내려놓고 믿어도 된다. 89년생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여러 말할 필요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56, 80</p>	<p>亥 35년생 돈이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47년생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59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 있는 날이다. 71년생 미연에 조지해 둔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83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행운의 숫자 : 45, 51</p>